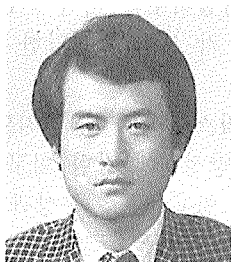


對美 電子通商使節團 現地活動 報告



최 영 훈
본회 미주과장

필자는 지난 6월 3일부터 13일까지 1990 대미 전자통상 사절단의 간사업무를 수행하고 귀국하였다.

本小考에서는 사절단의 현지활동을 중심으로 방문기간중 느꼈던 소감을 전달함으로서 한·미 통상관련 현지 분위기 이해에 一助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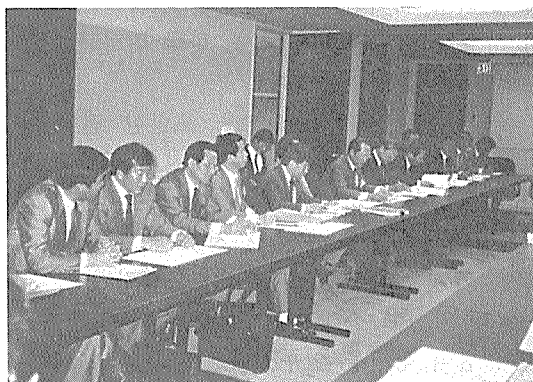
금번 사절단은 구자학 전자공업진흥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16명의 단원이 와싱턴, 시카고, 콜럼버스(오하이오), 산호세의 4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사절단은 먼저 시카고에 도착하여 일리노이주 경제개발부 담당자의 브리핑을 받은 후 맥코믹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90 Summer CES (Consumer Electronic Show)를 참관하였다.

○ 하계 CES

금년도 하계 CES는 전시품의 내용, 입장객수 등의 면에서 저조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종전에는 하계 CES가 전세계 가전업계, 딜러, 일반 소비자에게 까지 상당한 주목과 관심을 끌었으나 요즘에는 1월의 라스베이거스 동계 CES에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EIA 내부에서도 연중 2회의 전시회 개최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확실히 2년전 라스베가스 동계 CES 때에는 도시 전체가 CES를 홍보하는 현수막, 홍보물로 가득하여 쇼 분위기를 감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쇼를 통해서 Color TV의 디자인이 다양화되고 29" 이상으로 더욱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VCR은 Hi-Fi Digital 化, 4-Head, A/V SYSTEM 化되며 \$400 이상의 고가제품이 잘 팔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Audio는 CDS에서 Lazer Disk로 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意義 컸던 와싱턴 일정

와싱턴 일정은 6월 6일 워터게이트 호텔 콘티넨탈 룸에서 열린 리셉션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정치와 통상의 중심인 와싱턴에서 우리 측 주최로 개최한 이 리셉션에 우리 사절단이나 사절단 업무를 지원해 준 한국 대사관 모두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

우리 측은 구자학 단장을 포함한 전 단원 외에 대사관의 손명헌 공사, 이원호 상무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리틀 EIA 회장, 티모시 리차드 USTR 정보산업 통상정책 국장, 카렌·쇼프라 상무부 한국 담당관 등 30여명의 와싱턴 통상관련 고위인사와 업계대표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자리에서 구자학 단장은 사절단의 방문목적, 한국 경제현실과 양국간 균형적 교역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꾸준한 노력 등을 차분히 설명, 참석인사들의 호응을 받았다.

공교롭게 이날 와싱턴 포스트지에는 한국에서 과소비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수입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백화점 수입상품 매장이 철수되고, 수입 자동차의 수가 줄고 있는데 이는 배후에서 한국 정부가 원격조정하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가 실려 리셉션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자리에서 또다시 느낀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론이 주도하며, 또한 여론에 매우 민감한 사회라는 것이다.

와싱턴 포스트 같은 유력지가 어떤 시안을 들고 나올때 사실여부를 떠나 이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6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 지도 다시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 문제가 향후 양국 통상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임을 示唆하였다.

우리 사절단원은 리셉션에서나 이후 각종 회의, 유관기관 방문시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 상황과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약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근로의욕의 저하요인이 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에 있음을 설명하고 국가경제를 재생시키려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의 하나임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미국정부가 한국 시장상황, 소비자 기호, 통상정책 내용과 그 시행 등 통상현안 전반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주한 미대사관, 상공회의소, 한국 주재 업계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모든 자료와 정보를 일일 체크,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友軍이 된 EIA

제2회 한·미 전자업계 정례협의회, 다시 말하면 EIA-EIAK 정기회의가 6월 7일 새로 단장한 EIA 빌딩에서 열렸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가진 1차 회의는 양국 전자업계간의 민간차원의 첫번째 협력회의로 내외의 큰 관심을 끌은 바 있다.

양국 업계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통상기술협력, 정보교환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하며 특히, 통상문제 발생시 법적조치에 의존하기 전에 사전에 양국 대표가 만나 대화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양측 공감, 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첫 회의가 열렸었다.

작년 회의가 민간차원의 협의 창구를 개설하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년 2회부터는 점차 실질분야의 토의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측을 대표하여 윤용남 대우전자 부사장은 13" CTV의 A/D 조사대상에서의 제외와 미국 현지공장에 대한 A/D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EIA와 미국대표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미국의 개발능력과 마케팅 능력에 한국의 생산 강점을 접합시켜 제3국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며 정기 간행물을 통한 자료교환을 제안하였다.

엘렌 프로스트, Unite Technology 국제 담당 이사는 미국 측을 대표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원만하고 안정적인 통상관계 정립에 한국 정부의 기여가 컸음을 높게 평가하고 작년에 이어 지적 소유권 보호, 시장개방, 정부조달 협정가입, 대공산권 수출통제 등에 호된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표준" 문제에 비중을 두고 명확하고 공개적인 표준에 관한 절차가 시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번 2회 정례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전자산업 주요현안에 관한 실질토의로 발전하는 양

상을 보였으나 EIA는 앞에서 열거 하였듯이 정부간 협상에서 토의될 의제를 제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근년 들어 양국 업계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기울인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이 주효하여 EIA는 전자진흥회 및 한국 업체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전자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동반자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와 상당히 협조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EIA의 자세는 맥클로스키 사장이 전원을 자기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제공도 한국 음식점 "우래옥"에서 자택으로 출장와서 하도록 배려한데서도 잘 나타났는데, 현지 대사관 직원들도 이와 같은 경우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놀랄 정도였다.

對EIA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일언반구 없이 보호주의 쪽으로 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월 8일 오전 10시 사절단은 AEA(American Electronic Association)을 방문하였다. 작년에 단장단의 예방이 있었으나 양국의 업계대표들이 참석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단히 언급하면 EIA가 International한 면이 있고, 전자제품의 각 大 Item 및 Product를 깊이 취급하고 있다면 AEA는 주로 미국 전자산업의 기업환경개선과 세계 시장에서 미국기업의 경쟁력 증대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 활동의 성격도 강하여 미국 전역에 21개 Council을 운영하고 있다.

AEA는 또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조직으로 작년도에 종합무역법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시 USTR에 전자업종을 대표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하기도한 무역단체이며 현재 3,000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AEA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갖게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EIA와 더불어 AEA와도 정기적으로 회동, 항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

AEA도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와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더욱 의의가 컸던 것은 업무협정(Memorandum of Cooperation)의 체결로 양단체간에 협력체제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서 양단체는 양단체간의 협력증대가 각기 회원사의 이익과 필요한 사항의 충족을 제고시킨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무역, 시장, 교육,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하였다.

사절단은 와싱턴 일정 이후 두팀으로 나누어졌는데 한팀을 반도체 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실리콘 벨리로, 일반 전자팀으로 구성된 또다른 한팀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로 6월 9일 각각 출발하였다.

필자가 속한 반도체반은 6월 11일 오전 미국 반도체 기업의 대표적인 업체인 Intel社를 방문 최근 완공된 D-2 Plant를 돌아보았으며 이 자리에서 인텔의 골든 무어 회장에게 32 Bit P/C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하고, Intel과 한국 반도체 기업간의 협력증대에 더욱 관심을 요청하고, Intel과 한국 반도체 기업간의 협력증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6월 12일 EIAK-SIA 협력회의는 사절단이 묶고 있는 산호세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렸다.

SIA는 1977년 미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증대에 목표를 두고 창립되었는데 위치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이며 현재 정기 회원사 31개, 관련 회원사 25개사로 구성되었으며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시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현재 SIA는 국제무역에 역점을 두어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 반도체 제품의 세계 시장 확대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래 들어 전자진흥회와 한국의 반도체는 SIA와 빈번히 접촉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SIA의 Vice President인 Warren Davis와 법률고문이 내한 전자진흥회와 상공부, 주요 반도체 업체를 방문한 바 있으며 SIA의 초청으로 지난 6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국 반도체 업계 대표간의 협의회가 있었으며 다시 한번 사절단 방미시 현지 업계 대표들과 후속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의 관심도 약속이나 한듯이 한국의 반도체 칩 보호법 시행과 반도체 시장의 과감한 개방에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국내기업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현재 Localization Policy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과거와 같이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업계가 요구해도 가능치도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기업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비메모리분야에서의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향후 사절단 파견에 방향을 제시한 콜럼버스 방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방문은 한마디로 앞으로 전자사절단 파견이 어떠한 방향과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 케이스라 할 수 있겠다.

원래 콜럼버스시(오하이오주)가 선정되기까지는 이곳의 상공회의소 대표가 본회를 방문 한국 전자업계와 유대강화를 강력히 희망한 바 있고, 한번도 방문한 곳이 아니라는 점, 또한 주미 한국 대사관의 추천 등이 크게 고려되

었는데 앞으로도 과거 방문한 바 있는 대도시 위주의 사절단 파견을 지양하고, 이번 콜럼버스시 처럼 한국 전자업체와의 사업기회에 깊은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주정부나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조 동양정밀 부회장을 단장으로한 일반화의 콜럼버스시 방문은 현지 상공회의소 예방, 업계간 상담으로 시작되었는데 6월 11일의 업체 상담에서 260만불의 계약, 595만불의 상담이 있었다.

확실히 콜럼버스시의 사절단에 대한 배려는 각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의는 체제중의 기존회의, 행사 등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었으며 오하이오주지사 사무실, 콜럼버스 시장실 예방 등이 주선되었다. 특히 콜럼버스시에서는 사절단 단원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주어 사절단원들을 매우 훌륭하게 했다.

6월 12일에는 현지 상공회의소의 주선으로 건강 및 환경, 정보기술, 전자 및 광학시스템, 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인 Battelle Memorial Institute을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AT&T사의 공장을 방문하였다.

권혁조 단장은 현지 언론인 Columobus Dispatch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절단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오하이오주 소재 전자 제조업체와 한국 전자업체간의 투자기획 모색, 상호 교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평가 및 향후 운용방안

지금까지 “구매사절단” 이름하의 현지활동이 한 지역에서 단기간(보통 3일) 머무르는 동안 실제적으로 구매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절단의 구성, 시간적 제약, 사후조치의 미흡 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금년에는 산업협력에 주안점을 둔 사절단의

파견을 한 것인데, 현지에서 이러한 방향 추구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유력 전자단체인 EIA, SIA, AEA 등과 정례 협력의 창구와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보이며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와 업무협정, 그리고 회의에서 언급된 제반사안의 성실한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13" TV의 A/D 제외, 32 Bit 칩의 원활한 공급 요망 등 실질적 사안예의 접근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으며 이와 같은 구체적 협조 사안의 개발과 추진에 더욱 관심과 노력의 경주가 요망된다.

한국의 경제현실, 통상정책 등 아직도 인식 부족과 홍보활동이 현저히 부족한 감이 있다.

장기적으로 한·미 통상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단기적으로 통상 분야에 밝은 업계의 고위인사로 구성된 Task Force 팀이 주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 기관을 접촉 우리의 개방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지역도 와싱턴은 계속 방문하되 기타 지역은 콜럼버스 경우와 같이 未방문지역 중 산업협력에 관심 있는 지역을 선정 방문토록 하는 것이 단원이나 준비하는 방문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번 방문기간 중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셨던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